지상백고좌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명상 궁금하면 읽어볼 수 있는 ‘명상사전’ 필요”

12면에 이어

시대마다 말이 달라 번역은 항시 이뤄져야
직역 원칙…“의역, 시간 지나면 의미 달라”
“‘명상사전’, 中日에도 없어…우리가 만들자”



혜거 스님이 관장으로 주석하고 있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전경. 2010년 개관한 박물관의 외벽은 〈금강경〉으로 장엄돼 있다. 모든 구조물에 부처님 가르침과 탄허 스님의 법등이 드러나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열린 탄허 스님 열반 40주년 특별전 개막식에서 혜거 스님이 참석 대중에게 전시된 탄허 스님 관련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 전시에는 탄허 스님 사진자료와 원고, 유묵들이 전시됐다.

〈화엄경〉이 방대하고 심오하지만, 원력을 가진 사람은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것이 좋고, 참선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행의 열 단계를 자세히 적은 〈십지품〉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다.

간화선,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어

간화선의 수행법은 제자들이 어른스님들에게 묻고 공부하는 것이다. 간화선은 대부분 스승들이 제자에게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혜거 스님은 간화선의 수행법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스님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공부이지, 남이 가르쳐 주어서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지요. 〈입법계품〉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해 깨닫게 돼요”라고 말씀했다. 〈입법계품〉의 구조가 간화선의 선문답이나 법거량에 해당되는 것이란다.

옛 선사들은 질문을 던지면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무문관〉에 나오는 ‘조주의 발우’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조주 선사가 “죽은 먹었느냐?”하고 물었다.
스님이 “먹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주 선사는 말했다. “발우나 씻어라.”
그 스님은 문득 깨달았다.

선재동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기에 깨달음이 가능했다. 이처럼 조주 선사에게 물음을 던진 스님도 공부가 간절했기에 ‘발우나 씻어라’라는 한마디에 깨달은 것이다. 예부터 참선 공부는 발심(發心), 분심(憤心), 대의심(大疑心)이 있어야 진전이 있다고 했다.

“선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좌선 수행법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원을 정립하고 그 위에 삼매 정진의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삼매를 닦아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며 자신만을 위해 해탈을 구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원력이 있으면 참선 명상 중 일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좌선의 핵심은 대원력과 대정진이란다. 원력이란 건물을 쌓기 위한 기초와도 같은 것이기에 원력 위에서 삼매를 닦아야 함을 일렀다. 〈기신론〉에서 네 가지 지혜 ‘사지원성(四智圓成)’을 언급했는데 이는 명상 수련의 4단계에 해당된다.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참선에 대한 기본을 알고 하는 것이 좋다면서 〈기신론〉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

“먼저, 불각(不覺)의 경지입니다. 이는 전5식(前五識)의 경지로,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불각이라고 합니다. 불각은 범부 중생의 경지며 5관(五觀)의 세계로, 심지어 미물의 감각기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곱 가지 악업인 살생, 도둑, 음란, 망어,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를 소멸해야 5관이 청정해집니다. 이것은 중생 범부의 첫 수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를 ‘성소작지(成所作智)’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의식(意識)의 경지입니다. 5관이 청정해지면 지혜로 전환됩니다. 이는 제6 의식(意識)의 심소(心所)로써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사량분별해 집착하면 범부가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육식의 지혜가 됩니다. 이 경지는 탐(貪), 진(瞋), 치(痴), 만(慢), 의(疑), 악견(惡見) 등 여섯 가지 번뇌를 끊어야 초발심 보살의 지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묘찰관지(妙觀察智)’라 합니다.”

스님께 악견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구했다. 다섯 가지의 악견이 있는데, ‘나’라는 것과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신견(身見),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단견(斷見) 즉 변견(邊見), 인과를 믿지 않은 사견(私見), 아견(我見)에 집착한 견취견(見取見), 잘못된 계율 내지 종교관에 의한 계금취견(戒禁取見)이다.

“잘못된 인식과 그릇된 사고를 떨쳐내고 건전하고 바른 정신을 가져야 참선 명상에 매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보살(菩薩)의 경지입니다. 법신보살의 깨달음 지혜인데, 수분각(隨分覺)이라 말합니다. 지혜, 자비, 공덕 등 어느 한 부분에 정통한 경지이며, 제7 말나식으로서 잠재력 예지력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깊숙이 남아있는 ‘나’라는 번뇌의 뿌리를 없애고자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수행으로 네 가지 번뇌인 아견(我見), 아취(我痴), 아만(我慢), 아애(我愛)를 없애면 무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피차의 분별이 끊어지고 마음의 병이 소멸하기에 평등성지(平等性智)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경(究竟)의 경지입니다. 이는 참선 명상의 최고 경지인 원성실성(圓成實性)이며 구경각(究竟覺)입니다.”

혜거 스님은 “모두가 큰 서원을 세워 참선 명상의 수행으로 정진한다면 전쟁과 분쟁, 질병, 천재지변 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부가 어려워도 금생에 보살의 대원력을 세워 공부하는 인(因)을 뿌려 놓아야 함을 강조했다.

譯經, 왜 중요한 것일까

혜거 스님은 스승 탄허 스님의 역경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선지식이다. 〈화엄경〉을 좀 더 읽기 쉬운 언어로 출간하고 있고, 현재 동국역경원장을 맡아 역경불사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스님께 역경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스님은 역경이 시대에 따라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을 비교하면 중국말은 4천 년 전의 글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말은 10년 전의 말과 지금의 말이 달라요. 1960년대에 나온 〈한글대장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 현재 있는 말 중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번역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혜거 스님은 역경에서 의역이 아닌 직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있단다. 의역하면 지금은 알아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뜻을 지니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일본에도 ‘명상사전’은 없어요. 일본에는 〈선학사전〉은 있는데, 선학과 명상은 달라요. ‘명상사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이내 스님이 물었다. “큰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면 ‘억’하고 소리를 치지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답했더니, 혜거 스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춘추전국시대에 서진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수천 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군사에게 포위됐다. 서진장은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데, 소리라도 한 번 크게 지르자고 제안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소리를 지르니 상대 진영에서 놀라서 모두 도망을 가버렸다. 이를 ‘대성일갈(大聲一喝)에 만군 격퇴’라 하는데, 이것이 할의 첫 번째 유래이다.

그 다음은 윷놀이를 하는데 윷이 옆으로 설 때가 있는데 이때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 윷이 넘어간다. 이것이 ‘할’을 쓰게 된 유래이다. 임제 스님의 ‘할’은 여기서 전래됐다. 이것은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에 나온단다. ‘명상사전’을 만들어 이러한 것까지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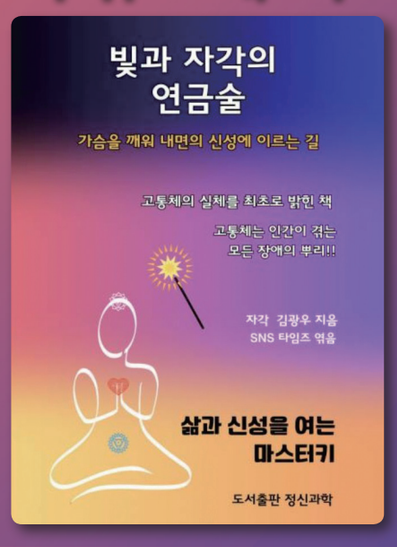
“모든 참선의 근본은 무심입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진일보는 ‘무심’을 뜻합니다. 천길 우물 속에 빠지면 잡념이 없는 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의 구조입니다. 선의 구조를 이해시켜 놓으면 참선이 쉬워져요. 명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라도 읽어볼 수 있는 ‘명상사전’이 필요합니다.”

혜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오래도록 듣고 싶었지만, 스님의 건강이 염려돼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스님은 돌아나서려는 범부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며 “참회 기도로 금생의 업은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자라면 염불의 공덕, 기도의 공덕을 믿어야 한다”고도 했다.

내 자신의 기도 공덕이 세상에 번져 사그러들지 않는 횃불이 되길 서원해본다.

문윤정 / 작가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